



보도시점 2026. 2. 11.(수) 12:00 온라인·방송 2026. 2. 11.(수) 12:00

초국가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 추진

- 전자담배, 식료품 등으로 위장하여 국내 유입 등 신종 마약류 확산 중
-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 구축·운영, 예방부터 단속까지 선제적 대응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유통망을 통한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확산을 차단하고, 지능화·국제화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내 일상으로 침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종 마약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망 단속, △마약범죄 예방, △국제공조를 한 묶음으로 연결한 종합 대응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 배경 및 현황

신종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유통시장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이뤄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되는 등 국민의 일상으로 손쉽게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식료품 등으로 신종 마약류가 위장된 상품 형태로 국내에서 유통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원액이나 혼합된 카트리지 형태로 유입되어 국내 유통되고 있다. [붙임 2 참조]

※ 전자담배에서 마약류 검출(국과수): '22년 26종(941회) → '25년 9월 기준 33종(1,206회)

신종 마약류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검거 인원이 '24년 10,326명(76.4%)에서 '25년 10,896명(81.6%)으로 증가, 압수량은 '24년 381kg에서 '25년 448kg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을 통해 젊은 연령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 '20년 2,608명(21.4%) → '25년 5,341명(39.9%)

10~3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 '20년 6,255명(51.2%) → '25년 8,492명(63.5%)

특별대책 주요 내용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구축·운영

경찰청은 2026. 2. 11.(수) 경찰 내 관련 기능 및 관계기관(8개) 공동으로 「예방·홍보 - 사전 차단 - 밀수·유통단속 - 치료·재활 - 국제공조」 등 전방위적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대변인실, 청소년보호과, 국제협력과

(관계기관) 대검찰청,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해경, 서울시, 국과수, 금융정보분석원 등

특히, 대부분의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므로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 경찰-관세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밀수·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 및 분석하여 신속하게 합동 단속하는 등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에서 신종 마약류(위장 상품 포함) 관련 불법 광고·판매 집중적으로 관찰(식약처, 서울시)하여 삭제·차단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도 병의원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가 청년층·청소년층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교육부, 서울시)하고 해양 밀수 취약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경)하여 국내 유통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합동 대응하여 선제적 차단한다.

나아가, 범망을 피해 유입되는 신종물질은 신속 분석(국과수)을 통해 임시 마약류로 즉시 지정하는 등 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새로운 물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의심 거래 분석(FIU)을 통한 마약범죄 자금추적으로 상선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구축·운영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함께 신종 마약 유입·확산·범죄수익을 차단하고,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마약이 확산하는 분위기를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를 통해 신종 마약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포하면서 기관별로 신종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 예방·홍보 - 국제 공조 등 기관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마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시작돼 온라인을 타고 이용하여 계속 확산하여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보 공유·단속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에게는 한 번의 호기심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단속과 예방·홍보를 동시에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오창한 (02-3150-0141)
		담당자	경 정	길민성 (02-3150-2171)
<공동>	대검찰청 마약과	책임자	과 장	서정화 (02-3480-2290)
		담당자	사무관	이병록 (02-3480-2292)
<공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책임자	과 장	박영민 (043-719-1901)
		담당자	사무관	최주영 (043-719-1920)
<공동>	관세청 국제조사과	책임자	과 장	최문기 (042-481-7740)
		담당자	사무관	이권일 (042-481-7702)
<공동>	해양경찰청 형사과	책임자	과 장	주용현 (032-835-2058)
		담당자	경 정	박주식 (032-835-2161)
<공동>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책임자	과 장	김영인 (02-2133-7830)
		담당자	팀 장	박아영 (02-2133-7530)
<공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과	책임자	과 장	최혜영 (033-902-5450)
		담당자	연구관	조지영 (033-902-5454)
<공동>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3과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2-3150-1890)
		담당자	경 감	송한민 (02-3150-1894)

붙임 1 신종 마약류 동향 관련 통계

□ 마약류 사범 유형별 검거현황

구 분(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검거	12,209명	10,626명	12,387명	17,817명	13,512명	13,353명
마약	2,027 (16.6%)	1,440 (13.6%)	2,101 (16.9%)	3,674 (20.6%)	1,656 (12.3%)	1,260 (9.4%)
향정	8,238 (67.5%)	7,142 (67.2%)	8,202 (66.2%)	12,128 (68.1%)	10,326 (76.4%)	10,896 (81.6%)
대마	1,944 (15.9%)	2,044 (19.2%)	2,084 (16.8%)	1,986 (11.1%)	1,509 (11.2%)	1,146 (8.6%)
특레법	-	-	-	29 (0.2%)	21 (0.2%)	51 (0.4%)

□ 온라인 및 10~30대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구 분(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온라인 마약사범 (전체 대비 비중)	2,608명 (21.4%)	2,545명 (24.0%)	3,092명 (24.9%)	4,505명 (25.3%)	4,274명 (31.6%)	5,341명 (39.9%)
10~30대 마약사범 (전체 대비 비중)	6,255명 (51.2%)	6,253명 (58.8%)	7,314명 (59.0%)	10,299명 (57.8%)	8,566명 (63.4%)	8,492명 (63.5%)

붙임 2 신종 마약범죄 주요 수사사례

- ▶ (신종마약) '24. 6.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마약류(대마 젤리)를 건네받은 뒤 지인들에게 무상 교부하여 함께 섭취하게 한 피의자 등 6명 검거(구속 2) [서울청 광진서]
- ▶ (신종마약) '25. 5.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와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담배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부정의약품을 제조하여 강남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피의자 10명 검거(구속 2) [서울청 마수대]
- ▶ (신종마약) '25. 9. 임시마약류 GBL을 속눈썹 접착 제거제로 위장, 해외 마약조직과 공모하여 호주·미국 등에 대량 밀수출한 업체 대표 등 13명 검거(구속 3) [경기남부청 마수대]
- ▶ (신종마약) '25. 9. 펜디메트라진(향정 라목 식욕억제제)과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오·남용한 의사 등 35명 검거 [부산청 마수대]
- ▶ (신종마약) '26. 1. 의약품 도매법인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불법시술소 운영자 등에게 유통한 대표 등 17명 검거(구속 10) [서울청 마수대]
- ▶ (청소년) 25. 4. 취미활동(힙합음악)을 함께하는 형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제공받은 후 또래 친구들과 전자담배 기기로 흡입한 청소년 피의자 3명 검거 [서울청 노원서]